

화재보험협회의 점검은 효과면에서 세계적

지난 3월5일 스위스 재보험회사의 동경사무소 책임자인 롤란트·마그(Roland Maag)씨가 한국화재보험협회를 방문하였다.

이하는 마그씨와 본 협회의 李承煒방재연구부장이 스위스 재보험회사의 위험관리와 협회 안전점검에 대해 대담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편집자주]

—나는 1973년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설립될 무렵 스위스 재보험회사 홍콩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그 당시 한국 재무부의 요청으로 몇가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중의 하나는 화협설립 준비위원회가 재보험회사의 방재전문가 한스·그펠러씨를 초청하여 몇가지 자문을 받고자 하였을 때 이를 주선한 일이다. 그 이후 당시의 李相臣 이사와 자주 연락을 하였기 때문에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업무 내용에 관하여는 비교적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다.

—현재 스위스 재보험회사의 엔지니어는 25명 정도이다. 이중 7명이 위험관리를 담당하며 나머지는 전자공업, 기관·기계, 발전공업 등의 Underwriting에 종사한다.

위험관리부 소속 엔지니어의 주 업무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점검기술자와 같이 점검으로 되어 있다. 이는 물

론 유료점검이며 스위스 재보험회사의 자체 필요성에 의한 점검은 무료이다.

점검결과 개수를 유도하는 것은 보험회사 위험관리의 큰 목표가 되지만, 실제로 개수는 스위스와 같은 나라에서도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관련 행정 관서에 통보하여 행정명령을 내리게 하는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업무체제는 인상적인 것이며, 의례적인 칭송이 아니라 이러한 위험관리 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고 판단된다.

—아무리 점검을 실시한다 해도 점검 실무에는 제한이 있으며 따라서 그 효과도 제한적인 경우가 있다. 가령 여름철 점검시 사용하지 않던 난로를 겨울에 사용한다든가, 점검시에 닫아 놓은 방화문을 점검 엔지니어가 간뒤에 개방해 놓는다면 점검도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내가 홍콩의 어느 건물에서 경험한 일인데 전기회사의 점검통보가 있자 복잡한 코드를 모두 치우는 등 법석을 떨다가 점검이 끝나자 다시 원상태로 복잡하게 복원시키는 것을 보았다.

어느 개발도상국의 한 공장에서는 옥외 소화전을 장만하였다고 큰 소리를 쳤으나 막상 조사해보니 땅밀의 파이프가 하나도 연결이 안된 전시용의 가짜였다. 요컨대 상대방이 속이려 든다면 점검하는 사람도 속아 넘어갈수 있는 것이다.

—스위스 재보험회사는 모 재보험회사와 같이 시험소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위험관리를 위해서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점검자들이 대상물건의 이재발생시 현장에 나가서 자세한 조사를 실시, 센스를 길러주고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업무에 반영시키고 착안하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스위스 재보험회사는 이러한 방면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화재시험은 엄청난 비용을 요하므로 실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러므로 이재현장의 철저한 조사·분석 및 그 결과를 효과적으로 위험관리업무의 feedback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험관리의 일환으로 Probable Maximum Loss 또는 Estimated Maximum Loss를 계산하는 기법을 사용하는데 대하여 회의를 느낀다. 미국의 2~3위쯤 가는 큰 보험회사(아마도 캠퍼그룹?)는 시험소를 운영하면서 기술을 닦은 경험을 토대로 기술진들이 PML을 산정, 실제 업무에 적용한 결과 이재시 비교해 보니 96% 정도가 예상과는 상이한 결과를 가져왔다. 보험도 business인데 계산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PML측정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시간을 많이 사용한다면 경영상 문제도 있을 것이다.

여하간 PML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그리 좋다고 할 수는 없다.

—International Oil Insurers와 같은 pool이 스위스에는 없다. 그러나 스위스 재보험회사와 IOI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원보험자들에게도 IOI 가입을 권고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

전반적인 보험료인상 불가피 —로이드회장 주장—

지난해 9월말 일본을 방문한 영국 로이드 보험협회 회장 피터 미러씨는 “건전한 세계 보험업의 발전을 위하여 보험료를 전반적으로 인상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보험기구인 영국 로이드 협회의 보험료인상 주장은 금후 세계 해운 유통 업계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로이드는 1981년 결산결과 보험수지적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세계 각국에서는 화재보험 분야 경영이 점차 부실

화하고 있는데 그 주원인은 방화(放火)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멕시코와 인도가스사고 속보

지난해 11월 19일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건 및 12월 3일 인도 보팔에서 발생한 유니언 카바이드사의 농약원료(독성가스) 누출 사고 속보가 전해졌다.

멕시코시티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 공식적으로 452명에 실종 1,500여명, 중상 2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비멕시코계 손해사정회사들의 손해사정결과 미화 2천만불 내지 3천만불 정도의 보험금이 적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보팔시의 유독가스 누출사고로 이미 사망한 사람은 2,000명에 이르고 있으나 한 전문가는 80만명의 보팔시 시민 가운데 4분의 1정도가 누출가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하는 형편이다.

현재까지 미국 본사에 미국의 변호사들이 2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중 첫번째 건은 두 희생자가정을 대신한 보상청구(US \$ 15billion)이며 다른 한 건은 US \$ 20bn 보상청구건이다.

인도 마드야 프라데시 주정부 당국은 유니언 카바이드사가 제의한 미화 1.84 백만불 보상제의를 거부한 바 있다. 유니언 카바이드사는 인도의 이 공장을 1975년도에 미화 2.5 백만불을 들여 건설하였다. 일부 전문가는 전체 보상이 2억내지 5억불 선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 billion을 영국·독일 등지에서는 만억,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10억으로 이해하는 바 본 자료는 영국 자료임.)

중공의 보험업계실태

중공 북경의 Peoples Insurance Company of China (PICC) 전무이사 쉹 완주는 최근 중공 보험업계의 현황을 공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PICC는 1949년 10월 20일에 설립된 국립보험회사로서 재보험 업무까지 취급하고 있다. 1984년 1월 1일부터 중공의 경제체제 개혁에 따라 국가 위원회 산하의 자치기구가 되었다.

1959년부터 1979년 사이에 국내 보험업무는 중단상태였으며 단지 해상적하보험등 “외국 요소”가 있는 부분만 허용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도 이래로 보험업무는 급신장, 1980-1983년 사이의 국내보험료 수입은 미화 51.6백만불에 달하였다. 현재 PICC는 전국에 1,500개 사무소에 30,0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다.

중공에서는 개인의 재산(손해)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보험취급자가 달려 미처 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보험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교 및 고등학교에서의 보험학 교습이 시급하다고 한다. 일부 PICC의 직원들은 해외에서 훈련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중공에서는 은행에서도 보험을 취급하며 협동농장, 공장 작업반 등도 이를 취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PICC는 마스크를 통해서 보험의 필요성을 선전하고 있다.

PICC가 상대하고 있는 세계의 보험회사는 800~1,000개사에 이르는데 특히 중공에는 미국의 American Inter-

nation Group 및 PICC가 합작으로 China America Insurance Co., Ltd를 운영하고 있어 독특한 형태의 체제를 선보이고 있다.

세계 보험업계의 명암

서독 보험업자협의회(Gestamverband der Deutschen Versicherungsirtschaft : GDV) 회장 게오르크 부크너씨는 1984년도의 GDV 400회원 회사(전 서독의 94% 해당)들이 미화 33.3bn불의 보험료수입을 올려 전년도 대비 7%의 증가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편 미국 American Insurance Association (AIA) 회원회사들의 3/4분기 경영실적은 대형이재로 인하여 크게 곤란을 받고 있는데 AIA 회원회사들은 1/4분기 중 6건의 대형이재로 총 325.5백만불, 2/4분기에 13건의 대형이재로 996백만불, 3/4분기에 3건의 대형이재로 71백만불의 클레임을 받았다.

프랑스의 경우 Federation of French Insurance Industries의 1983년도 통계에 의하면 보험료수입이 전년에 비해 약간 상승(13.5%)하였는 바 자동차분야는 양호하였으나 인플레이션 및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 그 전년도(17.5%)의 성장속도에는 못미쳤다고 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는 1983년도의 개인보험분야는 그 전년도에 비해 16%의 보험료수입 증가를 보였으며(총계 미화 5,338백만불=오스트레일리아 달러 4,543백만불), 단체보험분야는 전년대비 20%의 증가를 보여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2,028백만불의 실적을 올렸다. ☐

(이상 방재연구부 제공)